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선교회 : 청과성서학당 이후에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계삭회 : 지방 남선교회 계삭회가 오늘 오후 4시 상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새책 : 김기석 목사의 새 책 「예수」 (차정식 공저, 21세기북스)가 나왔습니다.
신앙실천 :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지나친 소비는 줄이고, 여행지에서도 환경보호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삼하 11:1-15 / 시 14	2부	빌 4:2-9
예배	엡 3:14-21 / 요 6:1-21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안홍숙 남인자 이증자 이수정b노성희 홍순구 최재욱
 다음 주 식당봉사 : 정영선 홍춘숙 김희우 김애순 김경혜 최숙화 박상준
 오늘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2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5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8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1. 다 찬양하여라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며 치유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딱딱하고 거친 세상을 살며 덩달아 몸과 마음이 굳어지고 거칠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손길로 우리와 몸과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딱딱하게 굳어진 것들을 풀어주시고, 한결 부드럽고 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폭력이 난무하는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함께 일하는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이들을 주님께서 꾸짖어 주십시오. 작은 이득에 눈이 멀어 권력에 복종하며 동료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고후5:17 인도자

♣ 교 독 문 79. 요한복음15장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대표기도 안길상 권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10.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 성경봉독 I. 삼하7:1-14a 엠2:11-22 막6:30-34,53-56 임창국 선생
 II. 살전 1:1-10 박범희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백합화를 보라 찬양대

말 씬 I. 멀리 그리고 가까이 이범석 목사
 II. 우리가 만들어가는 신앙 이야기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신철 이해경 권혁순 박혜경 김주영 김지현 김혜진 김훈동 유경순 김희진
 박홍재 문복순 박용철 김윤정 백성례 심상숙 오숙현 우순덕 원용일 최현선
 유상진 유은정 윤수진 윤순우 은종인 이광석 이경희 이왕준 송상경 이주영
 오재영 이한림 김명희 장동훈 정은선 장미경 전영린 정영례 정종삼 조경자
 조현권 박아영 주경진 이윤정 최 숙 최옥자 최지현 하현철 최성애 한규숙
 한상익 정영선 허신열 허준호 홍복선

감사헌금

김준호 곽해자 김중수 이순정 류준모 심호선 박명제 박미연 박범희 박예림
 신다현 우순덕 윤석철 장혜숙 이은혜 이자애 임승동 백해숙 장동열 최윤주
 장의림 최준혁 무명13명

생일감사헌금

권하영 한상익

녹색꿈헌금

김인석 이선화 무명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백 해 숙	박 성 희	방	학
안 디 옥	신 진 식	최 경 미		
가 나 안	장 영 숙	신 영 신		
베 다 니	박 홍 재	박 홍 재		
시 온	권 미 숙	박 미 영		
에 베 소	김 금 순	김 금 순		
빌 립 보	곽 권 희	윤 수 진		
가버나움	안 홍 숙	오 현 정		
나 사 렛	김 경 혜	홍 춘 숙		
다 메 섹	박 혜 경	박 혜 경		
두란노1	김 재 흥	오 자 영		
두란노2	김 재 흥	송 형 운		
두란노3	이 범 석	이 진 영		
두란노4	이 범 석	곽 상 준		
두란노5	신 진 식	이 오 복		

■ 마음으로 읽는 글

고등어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튼튼한 지느러미로
 나를 원하는 곳으로 헤엄치네
 돈이 없는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나는 또 다시 바다를 가르네
 몇 만원이 넘는다는 서울의 꽃등심보다
 맛도 없고 비린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안다네 그동안 내가 지켜온
 수많은 가족들의 저녁 밥상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루시드 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 송	315.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에게 전해진 신앙의 이야기를 귀히 여기십시오. 그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의의 승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사십시오.	
다 함께:	아멘. 허망하고 허탄한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리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예수님과 여러 신앙 선배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이야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김기석 목사	낮 집 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선교회	저녁 집 회 / 강의: 이범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정민 장로	이용현 선생 박영신 집사

7	영접위원	하현철 윤성종 주경진 김윤정 김경혜 홍춘숙
	헌금위원	윤석철 정경례

믿음으로 읽는 글

관상하는 농민, 톨스토이

... 내 나이 지금 53살. 레흐 톨스토이(1828-1910)도 쉰 줄에 들어서야 인생의 깊은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한다. 이미 러시아의 대문호로 인정받고, 상속받은 장원과 수없이 입금되는 인세를 관리하던 톨스토이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소유한 1만 6000에이커의 땅과 300마리의 말이 도대체 자신의 인생에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는지 회의를 느꼈다고 한다.

설사 고골, 푸시킨, 셰익스피어, 몰리에르와 같은 대문호와 어깨를 겨루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게 어쨌단 말인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재산도 명예도 예술도 가정도 일시적이라면 사람이란 과연 궁극적으로 무엇을 손에 들어야 하는가?

1878년, 오십대가 된 톨스토이는 본래 3부작으로 구상되었던 “전쟁과 평화” 1권을 끝내고, 속편이 될 “데카브리스트 사건”을 쓰기 위해 자료를 구하던 중 차르 정부의 문서 자료 열람 거절로 집필 작업이 좌절을 겪고 나서야 궁극적 질문 앞에 서게 되었다. 그가 볼 때, 부유하고 교양 있는 자들은 재산과 권세, 쾌락을 탐닉하며 “무덤 위에서 허무한 춤을 추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를 만나고 수도원을 찾아가 보았지만, 법의(法依)를 몸에 두른 자들이나 고위 성직자일수록 진실한 신앙이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말은 번질번질하지만 속내는 복음과 판판으로 보였다. 그는 진실을 농민들에게서 발견했다.

“나는 가난하고 학문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 보았다. 그런데 상류층에겐 빈껍데기뿐이었던 신앙이 그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증되고 있었다. 신앙은 그들에게 힘과 위안을 주었다. 신앙으로 일상에서 부딪치는 고난을 극복하고 맨 나중 문제라고 해야 할 죽음마저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가슴에 끌어안는다. ... 그들의 생활 태도에서 새삼스럽게 감명을 받았을 때 비로소 나는 번민이 차츰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참회”,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돈 강 유역에 살던 테모페이 본다료프(1820-1898)라는 농부였다. 그는 “그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그대의 빵을 얻으리라”라는 성서 말씀을 제 경험에 견주어 가며 “근

면과 무위도식—농민의 승리”라는 책을 썼다.

“하느님이 사람에게 시킨 일을 요약하면 두 가지다. 즉 남자는 땀을 흘려 빵을 생산하고 여자는 ... 그런데 남자들이 하는 일에는 불합리한 변화가 생겼다.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로 나누어졌으며, 모든 일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일에 해당하는 농업을 오히려 멸시하는 풍조가 나타났다. 돈으로 빵을 산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 결과, 하느님이 당부한 일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게 되었다. 들판의 짐승이나 하늘을 나는 새나 물 속의 고기들이나 하느님이 시킨 대로 살고 있는데, 교육받고 지식이 있다는 인간만이 사명을 회피하고 있다. ... 노동을 외면하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랑의 설교는 위선이나 다름없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쟁신을 신고 매일매일 호미를 손에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의무가 생활의 중심이자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말’을 중시했을 때 ‘사상’(思想)도 중단되는 걸 느꼈다. 그러나 본다료프 같은 농부들에게서 침묵 속에서 더욱 빛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톨스토이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쓰레기를 나르거나 뒷간 청소를 하는 것이 부끄럼이 아니요 동포에게 그것들을 나르도록 뒷간통 쓰레기통을 채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허름한 신발을 신고 손님으로 가는 것이 부끄럼이 아니고 신발 없는 이들의 옆을 고급 구두를 신고 지나가는 것이 부끄럼이다. 외국이나 최근의 일을 모르는 것이 부끄럼이 아니라 빵을 먹으면서 빵을 만들 줄 모르는 것이 부끄럼이다”라고 고백했다. “더럽혀진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럼이 아니라 손바닥에 굳은살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지경에 이르자, 톨스토이는 귀농을 결심한다.

톨스토이는 집과 정원의 일부만 남겨 두고 물려받은 땅을 모조리 농민들에게 거저 나눠 주는 일부터 했다. 물론 농민들이 십 년 안에 그 땅을 팔아 치우지 않는다는 약조를 받고서 말이다. 그동안 지은 소설에 대한 관련도 포기했다. 러시아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인민 누구나 자유롭게 톨스토이가 쓴 책을 공짜로 출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카피레프트(Copyleft)를 선언한 것이다.